

‘새한양로타리클럽은 패밀리 투게더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클럽’

- 9월 11일(월) 12:00 서울클럽



새한양로타리클럽(회장 송원규) 총재공식방문이 9월 11일(월)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동 총재와 윤상구 전RI이사, 최진욱 사무총장을 비롯, 새한양RC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의 클럽 방문을 환영하였다.



송원규 회장과 황준호 총무를 비롯한 클럽임원들이 함께한 클럽협의회에서는 클럽발전을 위한 여러 총언과 함께 금회기에 추진하는 지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클럽의 현황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봉사계획, 회원증강, 기부 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연설을 통해 “Family Together는 그저 회원 중에 가족을 조금 늘리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를 조금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타리 클럽은 개인끼리의 회원연합에서 가족끼리 연합하는 가정연합으로 대변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새한양로타리클럽은 패밀리 투게더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클럽”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증강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새한양로타리클럽은 1986년 창립하여 새한양 로타랙트, 덕성여고 인터랙트, 운현초등학교 리틀랙트, 새한양-누리 위성클럽을 창립하였으며 강화도 우리마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회원 친목과 국제교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뉴광진 · 서울인터코리아 · 서울화인로타리클럽 합동 총재공식방문

- 9월 11일 18:30 삼청동 한벽원미술관



서울뉴광진, 서울인터코리아, 서울화인 3개 로타리클럽이 합동으로 주최한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지난 9월 11일 삼청동 한벽원 미술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주회 시작 30분전 이순동 총재, 이흥수 1지역대표,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 유상재 회장, 서울인터코리아로타리클럽 엄창섭 회장, 서울화인로타리클럽 남윤재 회장 등 지구임원진이 참석하여 클럽 현황에 대한 전반적 보고와 계획에 관한 사전 미팅을 갖는 시간을 이순동 총재는 금회기에 3개 클럽 모두 가족회원의 영입 등을 통한 40명의 회원확보의 당부 말씀과 함께 PHF 2구좌 약정 등 클럽운영 발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3개 클럽 회원 모두는 이순동 총재 연설에 한마음으로 힘찬 박수와 응원으로 화답하고 단체사진 촬영 후 미술관 잔디에 모여 뷔페식사와 여흥을 즐기며 1지역인 서울뉴광진로타리클럽, 서울인터코리아로타리클럽과 3지역인 서울화인로타리클럽이 모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에 적극 공감

- 9월 12일(화) 19:00 웨라톤서울팔래스 강남호텔

글. 서울아르떼RC 총무 장광열

“총재님께서 의외로 소탈하신 것 같아 편안하고 좋았어요. 몇 차례 총재방문주회에 참석했지만 이번만큼 즐겁고 편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총재님 말씀 중에서 가족과 함께 봉사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로타리클럽의 봉사 유형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 강령에 이 시대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은 또 4가지 표준에 적힌 데로 모두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9월 12일, 이순동 총재 방문주회 후 이어진 뒷풀이 모임에서는 이날 참석한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 회원들과 게스트들의 이야기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이날 총재방문 주회는 백연옥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정덕 직전 회장의 로타리 강령 낭독 및 네 가지 표준 제창, 그리고 3지역 서창우 대표의 총재소개에 이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이순동 총재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순동 총재는 “Family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를 함께 이뤄보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의 삶은 개인보다 가족, 가정을 중시하는 세태가 주를 이루며 봉사도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 간 감성을 공감하는 활동으로 변모해나가고 있습니다. <나홀로 로타리안>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로타리안> 모임으로 발전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도 공고히 하고 인도주의적 봉사의 가치도 더욱 그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란 취지의 연설을 하였고 이는 참석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식사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자기 소개와 함께 다양한 화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아르떼로타리클럽의 총재 방문 주회에는 스폰서 클럽인 서울예장로타리클럽의 김지현 차기회장과 게스트, 장광열 이철완 김혜영 전 회장과 회원 등 모두 15명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이날 주회에서는 아르떼로타리클럽의 새로운 회원으로 입회한 현대무용가 황미숙(파사컴퍼니 대표)에게 총재님께서 직접 로타리클럽의 배지를 달아주며 입회를 환영하는 순서도 있었다.

서울예장로타리클럽, PHF 8구좌 약정, 회원 72명 목표

- 9월 19일(화) 07:30 프리마호텔



서울예장로타리클럽(회장 황순신)의 총재공식 방문이 지난 9월19일(화) 호텔프리마 신관6층 노블레스B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순동 총재와 서창우 3지역대표, 정휘재 회원증강위원장은 서울예장로타리클럽 황순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의 클럽협의회를 시작으로 총재공식방문 주회를 가졌다.

이순동 총재는 “Family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배우자와 형제,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연합의 형태를 통한 회원 증강과 로타리 재단 기부를 통한 인도주의적 봉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순동 총재의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PHF 8구좌 약정, 회원 72명을 클럽 목표로 정하였다.

이날은 서울예장로타리클럽에서 스폰서하는 숙명로타랙트의 서효림 회장과 박희영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황순신 회장이 숙명로타랙트 서효림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재공식방문주회를 통해 서울예장로타리클럽 회장을 포함한 임원, 회우들은 PHF 8구좌 약정과 회원증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응원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글. 서울예장RC 총무 고주현

서울삼청로타리클럽, 패밀리 투게더 동참, 회장 및 직전회장 배우자 등 4명 신입회원 입회식

- 9월 20일(수) 07:00 조선히텔 라일락룸



서울삼청RC(회장 최인훈)은 지난 9월 20일(수) 07:00 조선히텔 2층 라일락룸에서 桐谷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재공식방문 주회는 이순동 총재, 김중 10지대표, 엄경섭 RI3650지구 질병치료 및 예방위원회 위원장, 서울로타랙트클럽 회원 2명 등 회원 21명과 내빈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삼청RC는 이날 금회기 첫 신입회원 4분의 입회식을 가졌다. 신입회원 4명 중 2명은 이순동 총재의 핵심 전략이 패밀리 투게더에 동참하기 위해 최인훈 회장의 배우자인 이영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 관장과 이우식 전회장의 배우자인 김진옥 올라이트라이프(주) 대표이사가 입회했다.

서울삼청RC는 앞으로도 패밀리 투게더를 클럽 회원증강에 활용하여 가족회원의 영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식방문 주회 후 개최된 클럽협의회에서는 클럽의 현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클럽이 발전하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서울용산·서울남술 등 3개 클럽 공동 총재공식방문

- 9월 20일(수) 오후 6시 티마크호텔

글. 서울RC 회장 한태숙



"저녁 모임은 타 클럽과의 공동 주회로, 친목 다지는 1지역 클럽들"

서울로타리클럽, 서울용산로타리클럽, 서울남술로타리클럽 등 3개 클럽이 공동으로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지난 9월 20일 저녁 티마크 호텔에서 가졌다.

총재 방문 시, 3개 클럽이 공동으로 주회하기는 처음이나, 회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 서울로타리클럽의 경우, 점심 주회를 하얏트 호텔에서 영어로 진행하여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로타리인들이 쉽게 한국 로타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대표클럽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저녁 모임은 외국인들도 다양한 국내 로타리안들과 네트워킹을 즐기고, 현재 25세에서 35세의 회원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위성클럽인 "서울 영리더스 위성클럽" 회원 일부도 서울 로타리 클럽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녁모임은 좀 더 부담없는 공간을 찾게 되었다.

올 한 해에는 여러 클럽과 저녁 모임은 공동 주회를 가져볼 예정이며, 그 첫 번째 실험이 총재님을 모시고 하는 자리였다.

서울 로타리 클럽 회원들의 반응도 새로운 변화를 즐거워 하였으며, 서울남술 로타리클럽 이기홍 회장도 클럽에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회원들이 다른 클럽의 다양한 회원들을 만나 네트워킹하게 하는 것도 더욱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외국인 회원들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테이블에 앉게 하고, 회원이 통역하여 주는 형태로 시도해 보았는데, 이태리인인 마르코 클레멘테 (Marco Clemente) 씨는 다음에는 다른 클럽 회원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 보겠다고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시기에 다른 클럽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생기고, 즐거운 저녁 모임을 통해 로타리는 봉사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도 즐겁게 느끼도록 재미난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10일은 서울 로타리 클럽의 9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서, 이순동 총재님의 Family Together, Happy Together" 컨셉에 맞추어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더욱 즐거운 클럽으로 성장 할 예정이다.



서울한강로타리클럽, RI회장 배출클럽의 자긍심으로 적극 동참

- 9월21일(목) 12:30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서울한강로타리클럽(회장 유한중)은 9월 21일(목) 12시 30분, 그랜드 앰배서더 지하1층 샤프도넛룸에서 “동곡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이순동 총재 및 7지역 안종원 대표, 클럽 회장 유한중, 총무 송종면 외 임원, 지구임원으로는 이영석 평화 및 분쟁해결위원장, 신희섭 기본교육과 문해력 위원장 등 총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회에 앞서 클럽협의회를 통해 유한중 회장은 회원 증강 및 재단 기부 등 총재님의 운영목표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한강클럽에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순동 총재께서는 한국의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로타리 회장을 배출한 서울한강로타리클럽에 방문하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같은 7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클럽이라 어느 클럽보다 애착과 관심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회기 지구운영 방향 및 목표에 대해 클럽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클럽 회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총재님을 환영하였고, 총재님께서 공식방문 축하 성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서울회현로타리클럽, 로타리안으로서 ‘도전과 열정’을 발견한 총재공식방문

- 9월 28일(목) 07:00 플라자호텔

글. 서울회현RC 회장 김관수



서울회현 로타리클럽(회장 김관수)은 9월 28일(목) 청명한 가을 아침을 열며, 시청 앞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에서 이순동 총재님과 윤영석 로타리재단이사님을 비롯해 이세진 4지역대표, 차인태 총재특별대표, 김진환 총재특별대표가 참석하여 금회기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3월 28일에 창립한 서울회현로타리클럽은 사회 각 분야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모여 초아의 봉사, 진리의 마음으로 모인 봉사친목 단체이다.

권재진 부회장의 네가지 표준낭독, 차인태 총재특별대표의 송리더로 우렁차게 로타리송을 제창하였다. 총재 공식방문을 기념하며 김경한 신입회원 입회식이 거행되고 환영의 노래로 장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이순동 총재의 'Family Together' 의 슬로건 아래 자랑스러운 로타리안으로서 봉사활동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순동 총재의 진솔한 말씀들은 로타리안으로서 도전이 되었고, 열정을 다시 한 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순동 총재는 클럽 발전을 위한 성금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며 김관수 회장에게 특별성금을 전달하였고, 나누는 기쁨을 통해 봉사할 에너지를 더 얻었다며 성금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 김관수 회장의 꼼꼼한 준비가 어우러져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총재공식 방문주회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총재님, 이른 시간에 회현클럽을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잘 당겨주십시오. 서울회현로타리클럽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성심성의껏 잘 밀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예지로타리클럽, 지구의 대표적 여성클럽으로서 가족회원 영입 당부

- 9월 28일(목) 12:00 프리마호텔



창립 19년차를 맞이하는 서울예지로타리클럽(회장 김서현)은 9월 28일(목) 프리마호텔 지하 3층 '공 레스토랑'에서 이순동 총재 공식방문 주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이순동 총재 및 6지역 김정균 대표, 김서현 회장, 설영희 총무, 김정호 지구 여성위원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순동 총재는 3650지구의 대표적인

여성클럽인 서울예지로타리클럽에 방문하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성클럽의 특징을 살려 가족들을 영입하여 위성클럽을 만들어 클럽의 활성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예지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순동 총재의 방문을 축하드리며 김서현 회장과 김정호 지구여성위원장이 PHF 1구좌씩을 약정했고, 김서현 회장이 추천한 장명희 신입회원이 참석하여 이순동 총재가 직접 회원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통해 회원증강의 분위기를 돋우는 주회가 됐다.

'20년의 꾸준함을 강점으로 변화를 만드는 서울화산로타리클럽

- 9월 29일(금) 18:30 서울클럽 지리산룸



서울화산로타리클럽(회장 신정수)은 1996년 창립하여 꾸준하게 클럽 회원들과 교류와 봉사를 실천해오며 지난 9월 29일 남산 서울클럽 2층 지리산룸에서 총재공식방문 행사를 개최하였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기임에도 3650지구 이순동 총재와 안종원 7지역 대표를 비롯하여 12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클럽현황을 보고하고 금회기 클럽의 성장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재공식방문행사를 진행하며 이순동 총재께서 2명의 신입회원들에게 회원패를 직접 전달해주시며 우수클럽으로서 지역을 대표하고 회원 증강을 위해 모두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 뜻 깊은 격려를 전달해주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신입회원의 증강만큼 패밀리 투게더 회원증강 전략의 실천으로 더 성장하는 서울화산로타리클럽으로의 발전을 함께 결의하며 총재공식방문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글. 서울화산RC 총무 신현중